

조계종 사찰관제시스템 추진

1차 70여곳...내무부와 시설비지원 협의

최근 사찰문화와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첨단 관제 장비인 DCTV(개방회로TV)의 설치를 통한 사찰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문화부(부장 원학)는 DCTV 사찰관제시스템의 1차적 설치대상을 관립사찰 및 주요

사찰등 70여곳으로 정하고 내무부와 시설비 지원제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이 설치하기로 한 DCTV는 기존 CCTV에 비해 설치비가 30% 이상 저렴하고 관제능력도 뛰어나 관제사원이 자동 녹화되며 비상상황 발생시 관리자의 호출이나 휴대전화로 자동 연결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열감지센서나 소리 충격 감지센서로 다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도난이나 방화등 이상 행동이 자동 감지되어 관리자

에게 비상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가스총이나 소화탄이 발사되어 도난과 방화를 막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총무원은 이 관제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3개 건물과 경내에 설치할 경우 5천 내지 6천만원 정도 들게된다고 밝히며 "내무부와 협의하여 사찰에 설치할 경우 최고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은 우선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비 지원을 확보한 후 설치사찰을 선정

하고 해당 사찰들의 주지회회를 통해 설치 절차를 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옥천사 후불탱화 도난

경남 고성 옥천사 대웅전 후불탱화가 21일 새벽 도난당해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건륭9년(1744)에 제작된 석가모니부처님의 영산회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옥천사소장유물 1백 19점과 함께 경남유형문화재 제 99호로 일괄 지정돼 있다.

KBS '특종비디오저널 - 서울대출신 9명 출가' 흥미위주 편성...진실접근 부족

"시청자를 바보로 아나..." PC통신 등 항의 빗발

"KBS 제작진은 시청자를 바보로 아나보다..."

"이 방송은 그들의 출가를 사이비종교신자들의 집단적인 도피현상인양 빗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했다."

KBS 2TV가 21일 방영한 '특종비디오저널-서울대출신 9명 출가, 절로 들어간 사연'(PD 김영환)에 대해 PC통신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항의증 일파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스님들의 출가동기를 마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도피성 가출인 양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출가한 9명중 유일하게 일류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출가동기를 순수한 수행심으로 마무리했지만, 출가에 대해 부정적인 부모들의 모습과 '집단 출가했다'는 표현 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칫 불교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 또 이 프로그램이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하듯 출가자들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가십거리로 취급한 화면구성 등 불교를 마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로 매도해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9명의 출가를 물질만능사회에 대한 경종으로 본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감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출신...'이 방영된 직후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긴급모임을 갖고 24일 KBS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모니터회는 항의공문에서 "수행자를 흥밋거리로 다루고 부모 친지 얘기를 빌어 '억울하다' 내지는 본의 아니게 '말려간 것처럼 프로그램의 포맷을 잡은 것은 시청자의 수준을 무시한 것이며 수행자를 언론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 성토했고 "이러한 방송으로 말미암아 해당 출가자들의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작진들의 책임"이라며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언론사들이 출가와 같은 종교 문제를 주제로 선택할 때는 종교학자나 불교인의 도움말을 인용하는 등 신중한 제작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진인사들 전통거리 조성

해장국골목으로 유명한 청진동 일대가 전통거리로 본격 재개발에 따라 청진동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조계사와 인근 조계타운이 도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재개발계획에 따르면 청진동을 19개 지구로 나눠 중로구형 앞 중심부에 1천여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포함한 전통거리가 들어선다.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 남원시 철골조 조성계획 '물'의

남원 용담사 석불입상(보물 제 42호) 보호각 건립과 관련 사찰측과 남원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남원시가 석불 보호각을 주변환경이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골조로 조성하려는데다 사업예산 일부를 다른 곳에 전용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고건 측양식을 주장하는 사찰측이 크

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사업에 1억7천만원(국비 1억2천만원, 시·도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석불입상 주변 석축 기반단 및 보호각 설치에 사용하도록 시달려 놓았다. 그러나 남원시는 석불보호각을 법당양식이 아닌 우수방지용 철제지붕(주요소식 건물)형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예산 중 일부를 요새재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찰측은 올해 1월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여지껏 미뤄오다 느닷없이 철골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옥천 3사관학교 법당 호국사 상량식이 23일 봉행됐다. 호국사는 대구경북 5교구본사의 지원속에 12억4천만원에 들어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2백50평 규모로 세워진다.

CBS 불교비하방송 방송위로부터 경고

기독교방송(CBS) 대담 프로그램에서 '무슨 놈의 부처가 구원을 시키느냐' '불교, 유교도...사탄에 의해 조성된 것들' 등의 내용을 여과없이 방영했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TV(KCTS)도 설교 프로그램에서 '불교는 십자가를 망치로 두드려 만든 것' '불교는 방관하는 종교' 등 불교비하성 발언을 빈번하게 방영해 불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뉴스 & 뉴스

비리의혹 법사에 경위서

군순단(단장 이치영법사)은 21일 최근 소장과 법사들이 제출한 군순단 개혁 건의서와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의서에 비리의혹 해당자로 거명된 법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제의 건의서는 지난 9월 '군순단을 걱정하는 후배법사 일동' 명의로 군순단 부단장과 운영위원 등 3명에 게 보낸 것으로, △불교법사 불전함 사건 △불합리한 인사조치 △군순단 불사 관련 잡음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군법당 불사 및 운영에 대한 감시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위는 "군순단 내부 사안이니 만큼 지체적으로 무리없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불련등 10여단체 토론회

최근 2~3년간 더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불교운동전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동체한마당이 11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마련된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을 비롯 교계 10여개 단체는 8일 △불교계 부패풍조포기운동이 과제와 전망 △재가불교운동의 평가와 과제와 주제로 '불교운동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9일에는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교운동연대를 위한 공동체한마당'을 가질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 가을강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11월 6일부터 12월18일까지 송원지교수(한국외대 철학과)를 초청하여 '경전을 통해 보는 현대인의 삶'을 주제로 가을강좌를 갖는다.

이강좌는 개인·가정·사회의 윤리와 불교와 정치·경제 등이 개선했다.

불국사 경내 제2 석굴암 짓는다

합성수지이용 원형복사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제 24호 석굴암의 보존과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불국사 경내에 석굴암의 실물과 똑같은 제2석굴암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불국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2석굴암은 불국사 공동화장실 옆에, 합성수지를 이용해 불상과 조각들을 원형 그대로 복사해 만들어지게 되어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마련되는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승인신청을 낼 예정이다.

불국사측의 제2석굴암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고(본지 130호 18면 참조) 이미 약 1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석굴암 입주 발달스님은 "월산스님도 생전에 절대 반대하신 사안으로, 굳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연구자료집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고 밝혔다.

3사관학교 법당 '호국사' 상량

매년 7천여명의 초급장교를 양성배출하는 영천 제3사관학교(교장 강종필) 법당인 호국사 상량식이 10월23일 법사스님(은혜사 주지) 성천스님(불국사 부주지) 전 재관사장(영천시)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미(니) 호칭 '수자' '선재' 유력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사미(니)의 호칭이 '수자'(修者)나 '선재'(善財)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모든 사미(니)는 종단 기보교육기관 이수 증명서가 있어야만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됐다.

기초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

실종된 '신행단체 미래상'

불참했고, 가까스로 사회자가 기초발제 대신 주제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발제를 대신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우려폭질 끝에 신도교무부의 중앙신도회 기금으로 지원, 사찰운영의 신도회 참여 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총무원에 건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둘째날 예정됐던 자유토론 및 대표자 간담회는 시간지연으로 아예 취소됐다.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정형을 창출한다"는 수련대회 목적은 끝내 실현되고 말았다. 예정에 없던 수련원 소개 시간을 끼워넣은 것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었다.

"불교가 한 사회체제에서 존립의 근거나 존립해야 할 타당성을 갖고자 할 때에는 불교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규명없이 불교에 기반한 행동양식 또한 도출할 수 없으며, 이는 자기 기반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죽비소리에 다름아닌 이같은 소리가 중앙신도회에 들리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다. 죽비소리는 반항없이 소리치고 있을 뿐이다.

원심회 · 천마재활원 · 소쩍새마을 등

장애인 가을나들이 '한창'

가을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야외 나들이가 늘고 있다.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1월 1일 송보종할 송광사로 사찰순례를 떠났다. 수화기초 25기 중급18기 학생들과 원심회 회원모두가 참가하는 이번행사는 그윽한 산사의 정취속에서 신심을 돈독히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천마재활원(원장 박근원)은 25일 해운대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등반대회에 참석했다. 장애인등반대회는 부산대종대 태종산에서 개최됐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 원생 1백여명은 21일 원주사회복지대 축제에 참가하여 놀이한마당에서 마카레나눔을 선보이며 신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8~19일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중앙신도회 주최 제1회 전국신행단체대표자 수련대회가 열렸다. 3일 창립 이후 교구본회 산신도회장을 비롯 주요신행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급 신도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계획이어서 불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는 시작부터 실망으로 바뀌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은 임제사간은 교동형편상 그럴 수 있다고 본다. 6백여명의 인원이 일시에 모였으니 어느 정도의 혼잡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1백여명의 참가자들이 공안처로 발길을 돌린 것은 신행단체대표자 수련대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급신도회의 미래를 전망할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주제의 기초발제자가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

배경설명으로 발제를 대신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우려폭질 끝에 신도교무부의 중앙신도회 기금으로 지원, 사찰운영의 신도회 참여 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총무원에 건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둘째날 예정됐던 자유토론 및 대표자 간담회는 시간지연으로 아예 취소됐다.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정형을 창출한다"는 수련대회 목적은 끝내 실현되고 말았다. 예정에 없던 수련원 소개 시간을 끼워넣은 것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었다.

"불교가 한 사회체제에서 존립의 근거나 존립해야 할 타당성을 갖고자 할 때에는 불교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규명없이 불교에 기반한 행동양식 또한 도출할 수 없으며, 이는 자기 기반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죽비소리에 다름아닌 이같은 소리가 중앙신도회에 들리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다. 죽비소리는 반항없이 소리치고 있을 뿐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현존비에 지친 수련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환경친화적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린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결핵,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병중,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특별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
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
니 부당없이 尙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재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내부로부터의 혁명

건강한 몸 · 집중력 증진

인체에너지의 비밀과 그 활용법을 밝힌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뇌내물질을 조정하고, 인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한다.

- 건강 · 수명과 기와의 관계는?
- 뇌만을 다스리면 응급처방이고 복뇌(오장육부)를 다스리면 근원처방이다.
- 알파파 뇌파를 일으키고 엔돌핀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 피라미트구조의 비밀과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 잠재의식, 기에너지의 비밀은?

●총정가/인국판/368쪽/7,500원

도서출판 은주사 서울 중로구 청진동 6번지/전화 02)720-9372, 3 일만서점총판 만나서적/전화 02)267-7385